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마음속 선을 지우다, 동료들 만나다
<p>매년 1월이면 새해의 설렘이 찾아든다. 연구원 곳곳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준비하는 활기가 느껴지고, 인사담당자인 나 역시 한 해의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분주해질 때쯤, 내 시선은 어느 순간 공문 제목 한 줄에 멈춰 선다.</p> <p>‘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안내’</p> <p>1,000명이 넘는 전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미달 인원과 억 단위 금액이 적힌 내역서를 마주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라는 숫자는 늘 버거운 과제처럼 느껴졌다.</p> <p>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장애인 고용을 ‘함께 일할 동료를 찾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연구기관에서 과연 어떤 직무를 맡길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박사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틈에 장애인 직원이 들어올 자리를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의무 고용률은 점점 높아지는데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p> <p>‘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방법이 정말 없냐’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결국 나는 ‘연구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괜히 장애인 직원을 뽑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더 들지도 모르는데, 그냥 미달된 인원만큼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겼다. 인사담당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벽을 쌓고 있었던 셈이다. 그 벽 너머에 이미 우리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p> <p>사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단처럼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것처럼, 기관 내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연구 성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일상에서도 무언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장애인 동료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p> <p>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본관 1층에 문을 연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카페 101호점이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출근 시간에 주문이 몰리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뜨거운 스팀 기계를 다루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카페를 자주 들렀다.</p> <p>카페가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조직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메신저나 전화로만 업무를 주고받던 동료들이 커피를 핑계 삼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리스타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인사를 건네고, “오늘 커피 정말 맛있네요”라고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다.</p>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는 숙련된 바리스타이자, 우리와 똑같이 출근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변화는 거창한 교육이나 캠페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마주 보고,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같은 인사를 건네는 반복 속에서 나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막연히 품고 있던 선입견은 얼굴과 이름을 만나는 순간 힘을 잃었다. 어느새 나는 그들을 배려의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었고, 하루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무렵,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하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새롭게 시도 되었다. 온라인 강의 대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직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진지할지 확신이 없었다.

공연 당일, 강당의 조명이 켜지고 연주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다. 악기를 든 단원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 연주와 다르지 않았다. 공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자연스럽게 박수로 채워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매년 교육을 이수했지만, 그 어떤 강의도 이 공연처럼 마음 깊숙이 닿지는 못했다. 인식개선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카페의 온기와 공연의 울림은 내게 작은 질문을 남겼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동료를 맞이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 질문은 어느 한 사람의 고민에 머물지 않았다. 점차 조직 안에서도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했다.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중증장애인 인력을 채용했고 이들은 연구원의 구성원이 되었다.

원내에서는 '2026년 KIOST 신년 달력'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달력에는 직원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이나 연구원 전경, 연구 현장의 모습 등이 주를 이루었다.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장애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퇴근 후 그림을 배우러 간다거나 틈날 때마다 스케치북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조직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동료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달력에 담아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성과를 상징하는 사진 대신,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아보자는 작은 변화였다. 익숙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우리 조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직원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달력 속 그림들에 머물렀다. 작품 아래 설명을 통해, 그 그림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이 그린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

는 동료의 시선과 손끝이 달력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었다. 정해진 루틴에 따라 버스를 타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일상 자체가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였다.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이들의 진심은 우리 조직의 경계선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이제 나는 3.8%라는 숫자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 그 안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함께 웃는 동료들의 자리가 있다. 장애인 고용은 기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책상 위 달력을 넘기다 보면 그림 속 풍경에 시선이 머문다. 그저 예쁜 삽화가 아니라, 점심 시간에 수줍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의 눈에 비친 우리 연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림 속 따뜻한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겹쳐진다.

숫자 너머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며 마음속에 그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된 재능과 진심으로 우리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색깔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동료이자 파트너였다.

2월의 마지막 날, 다음 장의 달력을 넘기며 생각한다. 어쩌면 변화를 기다려온 것은 그들이 아니라, 편견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편견을 걷어내고 마주한 일터에는 도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짊어진 당당한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할 내일이 이제는 막연한 과제가 아닌, 기분 좋은 설렘으로 다가온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부담금이 아닌 동료애로 채워진 우리의 일터는 이제 그 어떤 바다보다 깊고 넓은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문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에게도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